

안전 ·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한 발 더

전북바이오진흥원, 체계적인 안전문화 정착...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45001을 획득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바이오진흥원은 6일 “한국경영인인증원으로부터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인증에 이어 2년여간의 꾸준한 안전경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조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심사·인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45001을 획득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하는 제도다.

바이오진흥원은 공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공표하고, 시스템 고도화와 위험요인 발굴·개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미 원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한 결과 국제표준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ISO45001에 걸맞은 체계적 안전보건경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J전북은행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앞장서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 취급금액에서 2년 연속 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년 연속 1위달성

전북은행, 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 따뜻한 금융 실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앞장서며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 취급금액에서 2년 연속 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는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연 4.5%(고정금리)로 낮추고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소상공인

권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또한 전북은행은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경영지원금 지원이벤트'를 3년 연속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3차 이벤트는 3월부터 9월까지 대환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첨을 통해 총 6명에게 1,350만 원의 경영지원금을 전달했다.

1등에 선정된 김모 씨는 “1등이라는 큰 행운이 올 줄 몰랐다”며 “전북은행 덕분에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현명한 금융생활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통합설명회 등 매칭데이 개최

전북테크노파크는 6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6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설명회 및 DX멘토 매칭데이'를 개최해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지원계획이 공유됐으며,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기업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DX멘토)와의 1:1 멘토 매칭이 진행됐다.

특히 DX멘토 매칭데이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진단, 전략수립, 고도화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스타트업,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 입증

크로스허브, 미국서 열린 'CES 2026' 서 핀테크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

전북의 혁신기업 (주)크로스허브가 세계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핀테크(FinTech) 부문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6일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전북 공동관 참가기업인 (주)크로스허브가 핀테크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미국소비자기술회화(CTA)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제품 제품 가운데 디자인, 엔지니어링, 기술 완성도, 시장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각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제품에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크로스허브가 선보인 수상작 ‘Financial Passport by IDBlock(아이디블록) and B·Pay(블록페이)’는 단기 방문 외국인인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다. 해외 방문객이 현지 앱 서비스나 결제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아이디블록(IDBlock)은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인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페이(B·Pay)’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기능을 통해 숙박 예약, 배달, 모빌리티,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크로스허브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

아 일본과 대만을 넘어 북미·유럽 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8개 기업 (주)크로스허브, (주)하다, (주)에어랩, (주)퓨처덕, 답세일즈(주), (주)엘앤디테크, (주)핀잇, (주)모스터일렉(단독관)의 CES 2026 참가를 돕고 있다.

지원은 전시 부스 입차와 디자인 설치, 혁신상 컨설팅 및 신청비, 항공·숙박 일부, 봉역, 홍보물 제작 등으로 구성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주)크로스허브의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전북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 수준 기술력과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쾌거”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서만 자라는 분홍빛 달콤함... 전국 소비자와 만난다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은 지난 5일 동김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실키 핑크토마토’의 롯데마트 첫 출하 상차식을 열었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롯데마트 매장에서 실키핑크토마토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동김제농협과 농협물류가 물류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키핑크토마토’는 전국에서 유일



하계 김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고품질 토마토로, 전북농협이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이다. 이름 그대로 은은한 분홍빛 과육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아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진다.

전북농협은 이번 롯데마트 전국 매장 입점을 통해 실키핑크토마토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김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

전주삼천신협, 누적기부금 2000만원 돌파

전주삼천신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또 한 번 따뜻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주삼천신협은 6일 완산구 용리로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 지역본부장과 최태일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함께했다.

전주삼천신협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재단에 기부를 이어오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누적 기부금이 2,24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초 신협중앙회 경영평가에서 ‘1군 경영대상’을 수상한 전주삼천신협은 H.O.P.E(행복·함터·자금심·혁신)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조합원에게 행복을 주는 신협, 지역사회의 함터가 되는 신협,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신협, 그리고 늘 혁신을 추구하는 신협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전주삼천신협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다.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아동 대상 ‘신협 어바바 멘토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어바바플랜’,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신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